

## 2. 솔서혼 2

### 1. 가족생활

- 솔서혼으로 생겨나는 가족생활의 형태를 살펴본다.

- 典儀副令 李穀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御史臺에 말하여 童女를 구하는 것을 혁파하기를 청했고, 대신하여 疏를 지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장차 반대로 먹여 기름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는 존귀하고 비천한 구별이나 華인가 夷인가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그것은 天性이 같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풍속은 차라리 남자로 하여금 따로 살게 할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으니 秦나라의 贅壻와 같습니다. 무릇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 주관하는 까닭에 그 딸을 낳으면 은혜를 베풀기를 부지런히 하여 밤낮으로 그가 자라서 능히 봉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품안에서 빼앗아 사천 리 밖으로 보내므로 죽히 한번 문을 나서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고려사절요 권25, 충숙왕 후4년 윤12월, 李穀 상소문)
- 옛날에는 親迎하여 부인이 사위에게 시집오므로 부인의 집에 의뢰하는 일이 몇 가지 있지도 않았다. 지금은 장가둠에 남자가 처가로 장가가니[男歸于女] 무릇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인이 의지가 되므로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습니다. (東國李相國集 권37, 祭外舅大府卿晉公文)
- (우왕) 10년에 李仁任이 그의 婢 鳳加伊를 禰에게 바치니 禰가 사랑하여 여러 번 그 집에서 유숙했다. 仁任이 피하여 別墅에서 사니 禰가 仁任을 아비라고 칭하고 妻 朴氏를 어미라고 칭했고, 仁任은 禰를 대하기를 畜壻처럼 하였다. (고려사 권126, 열전 39, 姦臣 2, 李仁任)
- 정가신은 나주인이다. 아버지가 정송수는 향공진사이다. 정가신은 일찍이 승려 천기를 따라 서울에 왔으나 빈궁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 천기에게 기식했다. 천기가 불쌍히 여겨 부잣집에 장가를 들이기를 구했으나[求贅富家] 응하는 자가 없었다. 대부소경 安弘祐가 허락하여 약속을 이미 정했으나 뒤에 뉘우쳐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나 사족인데 어찌 향공의 아들을 들이겠는가.’ 하였다. 얼마 뒤에 안홍우가 죽고 집이 날로 가난하매 허락하였다. 천기가 정가신의 손을 잡고 걸어가니 한 늙은 여자가 문에서 맞이하므로 싶을 태워 비취보니 초가 몇 칸뿐이었다. 천기가 돌아오며 울면서 ‘鄭生이 이 지경이 되다니’ 하였다. (고려사 권105, 鄭可臣)

- 또 친영례를 폐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니[男歸女家] 부인이 무지하여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남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어 교만하고 투기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 마침내 反目함에 이르러 家道가 느슨해져 버려짐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니 삼가지 않겠는가. (삼봉집 권7, 혼인)

## 2. 처가의 재력

- 술서혼의 시행에 처가의 재력이 중요했음을 살펴본다.

- 제가 불초하게도 일찍이 외람되게 혼인을 하여 한 끼 한 모금을 장인에게 의지하였지만 조금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입에 숨玉이 있다니요. 제가 예전에 처와 함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딸이 내 무릎에서 장난을 치고 아들이 엄마 허리에서 우는데, 내가 웃으며 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빨리 자식을 키우시오. 그대의 딸이 자라고 그대의 아들이 준수하거든 일년 사시와 복날과 납일에 고기를 그릇에 담고 술을 들어 매고 그대의 자식을 데리고 그대의 부모에게 절을 하되, 내가 소매를 걷고 꿰어 앉아 술잔을 받들어 壽를 올릴 때에 그대의 아들은 술잔을 받들고 내 손으로 술을 부어 올릴 테니, 그대와 딸은 또한 받아 재빨리 드리시오. 평생이 이와 같다면 부귀를 어찌 부러워하겠소” 하니, 아내가 웃으면서 “이는 진실로 제가 지키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동국이상국집 권37, 祭李紫微諒文 代子壻崔君行)
- 王璿은 수사도 주국이다. 사람됨이 욕심이 적고 부처를 독실하게 믿어 産業을 경영하지 않았다. 고종 3년에 죽었다. 딸이 2명이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했고, 장사를 지내지 못했다. 최충헌이 왕에게 아뢰어 관청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렀다.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대방공 備)
- 첨의중찬 致仕 金之淑이 죽었다. 지숙은 성품이 청렴하고 깨끗하며 바르고 강하였다. (중략) 지숙이 죽자 두 딸은 집이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여승이 되었다. (고려사 절요 권23, 충선왕 2년 11월)
- 경연에 나아갔다. 上이 金宗瑞에게 일러 말하기를 “親迎의 禮는 本朝에서 행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는데, 부윤 高若海 등이 古禮에 근거하여 요청했다. 태종 때에 親迎을 행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들도 역시 모두 시집갔는데,[嫁之] 親迎을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宗瑞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것이[男歸女第] 유래가 이미 오

래되었습니다. 만약 여자로 하여금 남자 집에 시집가게 한다면[女歸男第]奴婢와 衣服, 器皿을 여자 집에서 모두 당장 마련해야 하니 이로 인해 어려워져 꺼리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부자라면 신부를 맞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치러 대우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역시 꺼립니다.”라고 했다.

### 3. 역사적 의미

- 술서혼의 역사적 의미를 종법제와 관련해서 살펴본다.

- 政府가 의논하여 아뢰어 말하기를 “中國은 예의가 나온 곳으로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되어 음이 양을 좇아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가니[以陰從陽, 女歸男家] 아들과 손자를 낳으면 內家에서 자라 사람들이 本宗의 중함을 알고 아버지가 良人이면 모두 良人이 됩니다. 우리 東方은 典章과 文物은 모두 중국을 본받고 있으나 오직 혼인의 예는 오히려 옛 풍속을 따라 양이 음을 좇아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니[以陽從陰, 男歸女家] 아들과 손자를 낳으면 外家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本宗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천인이면 모두 천인이 됩니다. 심지어 祖父의 골육이라 칭하면서 婢妾이 낳은 자는 모두 使役을 시키니 輕重을 알지 못함이 심합니다.” (태종실록 권2, 태종 14년 정월)